

1. 종교다원주의 배경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42호
3월 7일
2020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총회 임원선출 관련 선거관리규정 점검

선관위 모임, 69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 등록 3월 31일(화)까지 마감키로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찬 목사)는 지난 2월 25일(화)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69차 총회 임원선출과 관련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임원진 구성을 위해 관련 규약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선관위원장 김인찬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선관위원 권우석 목사의 기도, 김인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대하 14:14,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주변 나라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상기하고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목회 사역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선출되기를 간구하고 이를 위해 기도를 당부했다.



선관위 서기 강태진 목사의 축도 후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기 강태진 목사의 경위보고를 통해 오는 3월 31일(화) 오후 5시까지(입후보자 서류 도착

분에 한함) 임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기로 했으며 이를 공문발송과 함께 목양신문에 공고(목양신문 제1142호 2020년 3월 7일자 3면에 게재)하기로 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조용목 목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시 91:1~13)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축출된 이후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위험에 노출되고 생존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존과 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법과 제도를 만듭니다.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각종 재난을 대비하는 조직과 기구도 설치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대비하고 만든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대처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성경은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길에 대한 소식입니다. 본문 말씀이 그러한 희소식입니다.

본문의 1절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지존이란 가장 높은 ‘더 없이 존귀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가리켜 “지존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늘’은 보호와 안식을 의미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처이며,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거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고 최상의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본문의 2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사탄 기지는 본문에서 지존하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언급하였습니다. 첫째, “저는 나의 피난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십니다. 둘째, “저는 나의 요새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요새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탄이 손을 못 대고 지옥의 권세가 미치지 못합니다. 셋째,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자

신의 관계를 확신에 넘치는 음성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뢰하는 사람을 불쌍하고 품어주십니다.

본문의 3절에서 13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열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 날에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니 너는 밤에 놀렷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열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지니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정박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로 누르리로다”

지존자로 거처를 삼고, 여호와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보호와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위험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첫째, 위험을 미연에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둘째, 위험한 일을 당해도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셋째, 위험과 고통과 손실이 발전을 위한 도약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 사탄의 꾀계와 권세도 능히 제어하고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잃은 것이 없습니다. 영혼이 보호를 받고 안전을 얻게 되므로 패배나 파멸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안전은 위험이 없는 곳이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판결 유감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 대법원이 대대적으로 구제

지난 2월 13일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한 특정 종파의 신도들 111명에게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에게 내린 결정의 기준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의 병역법 제88조 1항에 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국방의 의무’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특정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징집거부와 병역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덧씌워 거부해 왔던 것이다. 이렇듯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은 매년 약 600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사회는 병역 복무자와 기피자로 나뉘고, 병역을 필한 경우 자신들은 국가를 위하여 젊음과 청춘을 바쳐 고생했는데,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을 ‘양심세력’으로 부를 때, 상대적으로 ‘비양심 세력’이라도 되느냐며 반발해 왔던 것이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전 정권까지는 유지되어 왔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달라졌다. 대법원도 진보성향의 대법관으로 구성원이 바뀌면서, 지난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4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합법적 안정성이라는 중대한 사법적 가치손상하고 자칫 병역의무 이행상의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병역법의 입법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뿐 아니라, 병역의무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규범적 요청 및 국민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인식되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 법관들은 이런 법관의 법률해석과 사법권 행사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원칙과 책무에 따른 것을 무시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의 길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사법부 측에서는 지난 2017년 소위 ‘사법농단’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연루된 법관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겪었다. 그러나 최근 피의자신분을 가진 법관들에 대한 법원에서의 ‘무죄’가 선고되는, 아리둥절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관들이 법률을 해석하는 것에 혼란이 있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권을 뺀다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대다수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을 ‘비양심적인 세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최고 사법부의 정당한 법률해석인지 묻고 싶다.

더군다나 우리는 안보와 국방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군 복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를 감당할 청년들에게 열등감과 자괴감과 국민 기본의무에 대한 실종감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

태풍으로 사라진 比 망안족 두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지난해 12월 25일 아침, 필리핀 남동부 민도로섬에 몰아닥친 태풍(우르슬라)이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기대로 단 꿈에 찢은 망안족 두 교회(센터교회, 비라우교회)를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면서 폐허만을 남겼다. 약 150여 명의 망안족 성도들과 현지 원주민 목사는 3일 후에 통신이 연결되어 먹을거리가 없어서 기진한 자신들에게 쌀과 물 생필품 그리고 약품을 보내달라고 해서 황급히 선교사생활비로 쌀 150인분, 식수, 약품을 막힌 길을 뚫고 간신히 이사직전의 두 교회에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계속 그들을 돌기엔 개인 선교사의 능력으로는 한에 부질 수밖에 없는 일 이 아닐 수 없었다.



새해가 시작되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다가왔다. 한 후원자가 두 교회를 재건축하도록 돕겠다는 연락이었다. 그리고 착수금을 바로 보내주셔서 2월 24일 드디어 재건축의 첫 삽을 뜨게 되었다.

앞으로 두 교회 성도들과 힘을 합하여 16주간 동안 두 교회를 예배당 겸 태풍대피센터로 지어 태풍 재난 시 마을주민전체를 수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아주 절망적인 형편 가운데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독한 오지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 선교사 부부와 망안족 두 교회 목회자는 진실로 살아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망안족 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지면을 통하여 큰 환난 가운데 격려해 주신 총회와 필리핀지방회 인천지방회 목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필리핀에서 김성호, 양윤선 선교사 올림 건축후원 동참계좌
농협 321011-52-044121 양윤선



기도문

창궐한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신재영 목사
총회장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나라가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번영과 자유를 주시고 일천만이 넘는 민중의 사람들을 하락하시며 전 세계에 복음전파를 위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로 세워주시기를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복음화 초기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은 다 식어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보다는 죄악과 탐심, 우상숭배로만 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WCC 종교다원주의 신앙을 따

르는 교회와 교단들이 적지 않음을 비롯한 심정으로 이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일점일획도 변함이 없는 성경의 진리를 사수하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중국발 우한 폐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극심한 불안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창궐한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처럼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눅 21:11)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

을 믿고 온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궐한 전염병을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특히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교에도 적극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0. 3. 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한교연·한기총, 통합일정 차질

한기총 대표회장 구속영장 집행 받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2월 25일(화) 오전 11시 군포제일교회 에덴홀에서 제9-1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한기총과의 통합 건을 통합을 전제로 대표회장과 통합추진위원회에 세부 사항을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는 한기총과의 통합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와 지난 2월 21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통합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지난 24일 밤늦게 구속영장이 집행됨으로써 향후 통합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지난 임원회에서 통합에 관한 전권을 대표회장인 내게 맡겨줘서 그에 따라 전광훈 대표를 만나 일정을 진행해왔다.”라며, “이 자리에서 다시 총대들의 의견을 들은 후 총의를 모아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총대들은 전광훈 목사 유고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진행하자는 의견과, 전전히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었으나 전광훈 목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기총측 통추위와 대화하면서 진행해 나가되 통합을 전제로 한 세부일정은 대표회장과 통추위들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한교연 통추위는 30인의 상임회장을 모두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임원회에서 가입 심사를 통과한 4개 교단 4개 단체를 승인하게 진행하자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었으나 전광훈 목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기총측 통추위와 대화하면서 진행해 나가되 통합을 전제로 한 세부일정은 대표회장과 통추위들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우려로 기독교연합회관 등 종로5가 회의실을 빌리자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군포제일교회에서 열렸다.

한기보협, 제35회 정기총회 성료

국가안정과 평화통일, 한국교회 위해 기도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2월 18일(화) 오전 11시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소재 동 협의회 본부 비전센터에서 42개 회원 교단총대들이 모인 가운데 제35회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는 박형철 목사(로고스협의회 대표)의 사회로 김영호 목사(예장보수합동총회)의 기도, 목양자 목사(예장보수연합 총회장)의 성경봉독, 도감은 목사(문화예술위원회)의 특송, 선환기 목사(예장영신총회)의 마 5:13-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빛과 소금인 예수님’이란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선 목사는 설교를 통해 “빛과 소금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어 구원을 시키려 세상에 왔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된 예배는 ‘국가안정과 통일을 위하여’ 오현관 목사(오순절총회)가, ‘한국교회와 협의회(총회·단체)를 위하여’ 김성립 목사(예장제지총회 총무)가 대표기도를 했으며, 김주향 목사(문화예술찬양단)의 한금송 오동환 목사(예장호헌총회 총무)의 한금기도, 진공열 목사(중부지회장)의 축사, 박영호 목사(DC회장)의 격려사, 이의근 목사(법인이사)의 권면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로 이어졌다.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였지만 한 모퉁이에 시각지대가 있었다. 잘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총대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로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1년 동안 더욱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8개교단 이단대책위·CBS, ‘신천지 아웃!’ 성명

제2의 ‘신천지OUT 캠페인’ 전개 예정

CBS와 한국교회 주요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2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CBS 5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신천지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와 관련한 신천지 이단교회 교주의 공개 사과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한국교회 주요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들은 “이단 신천지는 그동안 청년, 대학생, 직장인들의 기출과 이혼을 조장하는 등 가정 파괴를 비롯한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며 대한민국 사회에 독버섯처럼 서식하고 있다”면서 “신천지의 반사회성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좁게 하는 병폐”라고 지적했다.

주요 교단 이단대책위원장은 성명에서 먼저 “이단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랫동안

안 사회를 병들게 한 이단 사이비 집단”이라면서 “앞으로 교회라는 표현과 특정 교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언론에 당부했다.

또한 “국가적 재난에 이르게 한 코로나 감염 확산의 책임을 하루빨리 공식 사과하고 사법기관에 스스로 출두해 수사를 받기를 촉구한다”면서 신천지의 불법, 탈법적인 행태를 현행법으로 처벌해주길 정부와 사법기관에 촉구했다.

정재원 CBS 선교TV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신천지에 빠진 영혼들은 지금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다시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대상”이라면서 “앞으로 이단대책위원회와 CBS는 그 이후의 과정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미리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CBS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CBS 신천지대응팀’을 구성하고 제2의 신천지OUT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미래한국 위한 기도회 및 포럼 개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



(사)한국미래포럼(회장 박경진 장로)·기독교인권단체총연합회(회장 김권 박사)·(사)한기문화교류협회(회장 최광혁 장로)가 공동 주관한 급변하는 현 시국과 미래한국을 위한 특별기도회가 지난 2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

당에서 열려 “한국교회 침투해 있는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달라”고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최광혁 장로(한기문화협회 회장)의 사회로 이정규 장로(한정총 중경

회장)의 대표기도, 최효석 목사(한센인선교회 이사장)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최효석 목사는 대상 14:2 말씀을 본문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경이 제시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들이 쓰임을 받아 영광된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자”라고 강조했다.

김병운 목사(한민족교류협회 이사장)의 축도에 이어 진행된 2부 특강 시간에서 박경진 장로(한국미래포럼 상임회장)는 환영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뜨겁게 환영한다.”라며, “이런 기도회와 포럼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가조찬기도회, 6개월 뒤인 9월 28일로 연기

코로나19 심각성 감안 2일 오전 임시이사회 열고 결정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회장 두상달 장로)는 지난 3월 2일(월) 여의도 컨벤션 호텔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오는 3월 25일 열릴 예정이던 국가조찬기도회를 6개월 뒤인 9월 28일로 연기했다.

기도회 측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형교회 주일예배 중단과 실내외 집회 제한을 위한 정부 권고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작성해 회장 두상달 장로가 낭독했다. 두상달 장로는 “전염병이 이 땅에서 소멸되고, 확인된 환자들이 신속히 치료되며, 정부 요원들과 방역 관계자, 그리



고 의료진들을 지켜 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했다.

또 수석부회장 이복관 서회건설 회장의

제안으로, 국가조찬기도회 임원들이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금해 코로나19 방역과 치료현장을 방문해 기탁하기로 결의했다.

월드비전, 공개로 차기 회장 선출

오는 3월 10일(화)까지 지원자 공개 모집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월드비전 소식지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 9대 한국 월드비전 회장을 공개 채용한다. 제 9대 회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수행하며 임기는 3년으로 2회 연임이 가능하여 최장 9년까지 재임 가능하다.

월드비전의 공개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자격요건은 ‘국제적 업무 수행 경험 및 경력’, ‘경영 및 조직운영 능력’, ‘기독교적 정체성’ 총 3가지다. 특히 올해는 월드비전 임직원과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회장이 지녀야 할 자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의 의견을 채용 과정에 반영해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런 차기 회장 공개 채용을 위해 월드비전은 지난 12월 제 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노훈 신촌성결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인선위원회를 꾸렸다.

이번 공개채용에 지원을 희망하는 후보자는 3월 10일 자정까지 월드비전 홈페이지

화할 예정이다.

이번 회장 공개 채용은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자 접수 및 인재추천기관(씨지넷)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 받아 진행된다. 지원자는 인재추천기관의 심사와 인선위원회의 면접을 통해 자격심사를 받게 되며, 올해 7월에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차기 회장 공개 채용을 위해 월드비전은 지난 12월 제 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노훈 신촌성결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인선위원회를 꾸렸다.

이번 공개채용에 지원을 희망하는 후보자는 3월 10일 자정까지 월드비전 홈페이지



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메일로 지원하면 된다.

예장중앙총회, 류금순 총회장 취임예배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함께 합시다” 총대원들에게 단합 당부



대한예수교장로회(중앙)총회(총회장 류금순 목사)는 지난 2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소재 서울중앙교회에

서 제50회기 총회장 류금순 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1부 기념예배는 준비위원장 이영희 목사

의 사회로 전반기부 부총회장 박수열 목사의 기도, 이성모 목사의 성경봉독, 부총회장단·코로나마포중장단(서울중앙교회)·호연연주자 하주희의 특별찬양, 정지부장 이근영 목사의 고루 4:7-10절을 본문으로 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 목사는 설교에서 “환난 중에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자.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지 말자”라며, “교만하지 말자, 모두의 말을 경청하라, 법과 원칙을 지키자, 임마누엘 정신으로 중앙총회를 살리자”라고 강조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제37회 부흥사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 ‘성결부흥-다시 살리는 예성 부흥사회’라는 주제로 두란노교회(이상문 목사) 운양예배당에서 개최됐다.

첫째 날인 20일(목) 오후 8시 이상문 목사

(20대 총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에서는 이동석 목사(증경총회장)가 ‘이사가 본 환상(사 6:1-8)’이라는 제목으로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고용복 목사(증경총회)가 축도를 말했다.

이어 윤광석 목사(36회기 대표회장)의 사

회로 시작된 총회에서는 이강춘 목사(교단총무)가 축사를 겸한 격려사를 했다.

마지막 날인 21일(금) 노윤식 목사(신임 대표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폐회예배에서는 오호성 목사(총후부교회)의 기도 후 윤광석 목사(직전 대표회장)가 ‘삼경줄의 힘(전 4:9-12)’이라는 제목으로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제37기 신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제21대 총재 이동석 목사 △제37대 대표회장 노윤식 목사 △상임회장 김신호 목사 △사무총장 정성환 목사 △서기 전승환 목사 △부서기 이규현 목사 △회계 심상훈 목사 △부회계 성승식 목사.

화목하게 하는 주의 종 될 것 다짐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전하세 목사)는 지난 2월 17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선한목자교회(담임 최은규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임형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은금홍 목사의 기도, 서기 안재봉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회장 최은규 목사의 설교, 회계 조광현 목사의 헌금기도, 그리고 설교자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레 3:1-5 말씀을 본문으로 '화목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 말씀에 새삼을 자기와 화목케하신 주님의 은혜로 모두 화목의 종들이 될 것"을 부탄함으로 회원들을 격려하고 축복했다.

예배를 마친 후 신임 정해경 전도사(순복음선한목자교회)와 지화자 전도사(드림교회)의 임명식을 진행했다.



또한 연이어 회장 전하세 목사의 사회로 정기월례회로 이어져 각종 회무를 처리했으며 3월 1일에 있을 순복음아멘교회의 제지 임명식(3월 1일 주일 오후 4시)에 대해 광고한 후, 증경회장 김종연 목사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예배는 전장길 목사(태백성지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유홍열 목사(영일열린교회)의 대표기도, 정주영 목사(강릉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박순용 목사(원주중성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장로장립 및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

강원동지방회

강원동지방회(회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2월 22일(토) 오전 11시 진부제일교회(담임 이성은 목사)에서 2020년도 장로장립 및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전장길 목사(태백성지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유홍열 목사(영일열린교회)의 대표기도, 정주영 목사(강릉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박순용 목사(원주중성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마 9:37-38 말씀을 본문으로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 전하고, 임직자에 대한 안수위원장의 서약과 안수위원의 안수가 이어졌다.

임직자는 김신근, 노덕훈, 이승전 장로 외 안수집사 5명과 권사 12명이었다. 안수위원 박순용 목사, 이창재 목사, 진장길 목사, 유홍열 목사, 이성은 목사는 임직자들을 안수하고



열 목사, 정주영 목사, 박규희 목사, 엄기소 목사, 이성은 목사는 임직자들을 안수하고 공포한 후 패수여식을 갖고, 엄기소 목사(태백성지교회)의 권면 및 축사, 박규희 목사(원주중성교회)의 헌금기도, 교단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임직예배 후에는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모든 순서를 마친 뒤, 진부제일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더 많은 형제들이 교회와 신학교를 통해서 페루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복음사역자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페루 은혜와진리교회 선교보고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과 페루선교회 회원을 비롯한 한국 은혜와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페루 은혜와진리교회의 모든 교인들과 함께 새해 인사와 선교보고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조 목사님과 교통하며 세계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의 격려와 지도를 받고 한국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페루복음화를 위해 일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해 한국 은혜와진리교회의 '2019 선교사 초청대회'에 참석하여 조 목사의 메시지와 성도님들의 환대와 사랑

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돌아와서 새로운 각오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한국 은혜와진리교회의 '청년 IMCR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청년 사역자들도 지혜와 능력이 증대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곳 페루 은혜와진리교회 우양캄오 성전과 마리오 목사님이 수고하는 뿌갈바 제2성전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교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이번 새해에는 더 많은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교를 통해 더 많은 형제들이 영혼들을 추수하는 복음사역자로 세워지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페루 은혜와진리교회의 사역하는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이곳 우리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 이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페루 우양캄오에서
루우벤 콜리프 로드리게스 목사 드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총회임원 및 지방회임원)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칙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이라 한다.(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 교단의 부흥발전과, 오직 성경적인 교단운영으로 국내 외 선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임원을 선출함에 있다.
- 총회를 섬길 의롭고 신실한 임원을 선출할 때에 세속적인 수단, 방법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가운데 총회 임원이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 시켜 교단 발전에 헌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원의 후보 자격

- 총회임원 자격기준은 헌법 제84조에 의하고 지방회의 임원은 헌법 제76조에 의한다.
- 임원 후보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헌법 제73조에 의거, 총회와 지방회의 상회비 연체자가 없어야 한다.

제4조 총회임원 후보 등록 및 운영사항

- 총회임원 후보자의 등록 서류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마감일 전까지 총회본부에 제출하고, 총회본부의 접수

당자는 제출자의 인화하여 서류 목록을 확인한 후 봉인한다. 단, 제출한 서류 및 등록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총회 임원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는 등록마감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개봉하여 서류심사 후 후보 등록 가·부를 임후보 당사자와 총회임원회에 통지한다.
- 총회임원 임후보자는 지방회임원회의 추천과 총회원 10명 이상의 서명 추천이 있어야 한다.
- 등록한 임후보자의 기본정보는 선관위가 총회 홈페이지, 총회신문, 우편으로만 총회임원에게 공지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위반한 임후보자 및 총회 임원은 즉시 선관위가 소환 조사할 수 있으며 범법자로 판단이 되면 즉시 재판위원회에 회부하고, 재판위원회는 신속 처리하여 선관위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선관위는 총회 임원회에 통지한다.
- 총회임원 임후보자가 선관위 시행규칙 위반 시에는 선관위는 임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는 해당 직무를 정지하고 재판위원회에서 유죄판결이 되면 당선은 무효로 한다. 결원된 임원은 정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미등록 발생 시 교단헌법 제84조 3항 4호에 의거, 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서류는 선관위에 제출한다.
- 등록비는 총회장 임후보자는 1천만원, 부총회장 임후보자는 500만원, 총무 임후보자는 300만원, 그 외 임원 임후보자는 각 20만원씩을 총회 재정부에 입금하여야 한다.

*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임원 임후보자 선거운동의 규제사항

- 총회임원 상회비 제공 및 요구행위와 식사접대행위
-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 관공모임을 주선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총회시 숙식, 오락 및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인터넷, 유언물을 통한 선거운동
- 기타 선거운동
- 상기의 규제사항은 선관위 공고일부터 정가총회 후 10일까지 적용한다.

제6조 총회임원 임후보자의 제출서류: 각 1부씩

- 임후보 신청서(총회양식)
- 안수 증명서(목사는 총회에서, 장로는 지방회에서 발행)
- 상회비 완납증명서(총회, 지방회 발행)
- 재직증명서(목사는 총회, 장로는 소속교회)
- 명함판 사진(6개월 내 촬영) 3매
- 임후보 등록비 영수증 사본
- 지방회임원회 추천서
- 총회임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 이력서 및 교단 내 약력 소개서
- 임후보 소견서(A4용지 1장 분량)
- 가족관계증명서

제7조 부칙

시행규칙은 총회임원회를 통과한 즉시 발효한다.

2011. 3. 7. 제정
2012. 3. 5. 일부 개정
2012. 4. 16. 일부 개정
2013. 3. 5. 교단명칭 변경
2015. 3. 3. 일부 개정

1. 등록마감 : 2020. 3. 31(화) 17:00까지
2. 등록장소 : 총회본부
(접수담당자 : 사무국장 목사 윤기석)
3. 등록방법 :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4. 문 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인찬 목사
(010-3033-0073)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강태진 목사
(010-3511-9389)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김 인 찬 서기 목사 강 태 진

■ 생명의 말씀 ■



김인찬 목사

· 예하성 중경총회장
· 선거관리위원장
· 청신교회 당회장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쫓겨 못하고 그들의 법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에 오르면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 이었던 앗수르와의 동맹을 파괴합니다.

본문 18장 4절을 보면 앗수르 때문에 들어온 신병들 주상들을 히스기야는 다 없애 버리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앗수르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없애버린 것들도 굉장한 일이지만 더 굉장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년 동안 놋뿔을 만들어 섬긴 것이

였습니다. 전통을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뿔을 통해서 불뿔에 물려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불뿔을 만들어서 그걸 보게 함으로서 백성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놋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린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놋뿔 우상을 없애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8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하루아침에 제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놋뿔에만 그걸 건드리면 지금까지 섬겼던 많은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왕권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분노하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왕도 쫓겨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보물로 여기던 놋뿔까지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정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8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외조모가 ‘스기라’란 말이 나옵니다. ‘스기라’란 ‘선지자’ 그러니까 아빌 때부터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란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격하게 교육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개혁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기 전부터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스려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축복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열어 주셔야지 앗수르에 쫓겨갈 때면 앗수르가 섬기는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놋뿔을 모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는 결국 왕이 된 이후 결단하고 다짐한 일들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라가 강성하고 복 받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놋뿔과 잘못된 우상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깨뜨리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악법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 뽕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내가 지금까지 놋뿔을 쳐다 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세상만 따라 갔구나”. 바로 그런 깨어짐의 은혜를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잘 되고 어디를 가든지 행통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앗수르와의 동맹을 파괴하니 앗수르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결국 185000명의 정예부대 앗수르의 최정예 부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85000을 다 처리하고 정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셔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 나를 깨뜨리면 하나님께선 더 넘치게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가 부셔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셔졌다 내일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죽어지니 하나님이 그를 엄청난 사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포도도 으깨질 때 포도주가 나오고 밀도 다 부셔져야 거기서 따끈따끈한 우동이 나

오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개혁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된 것 모든 것들을 깨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날마다 깨뜨리고 부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가말리엘 최고의 명문 학부의 졸업생이었습니다. 귀족가문이고 머리로 똑똑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부셔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부셔뜨려야 합니다. 내 고집, 내 교만 부셔뜨려야 합니다. 올라가고 싶은 내 명예 부셔뜨려야 합니다. 부셔뜨리면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앗수르의 우상과 이스라엘의 놋뿔을 깨뜨려 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들 죄의 모습들을 용기 있게 깨뜨려 버리므로 하나님께 칭찬 받는 축복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 정

나사렛대, ‘교육국제화 인증대학’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가 교육부 주관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월 13일(목) 밝혔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는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일산기독교연합 신광호 목사 취임



일산기독교연합회 2020년 회장 신광호 목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취임감사예배를 지난 2월 18일(화) 명성제1교회에서 드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한 회기의 문을 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 진통을 겪는 시기에도 일기엔 회원들은 교회가 하나되는 일과 일산 복음화를 향한 열정으로 자리를 지켰으며 신광호 목사는 “복음화 일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목사 부총회장 후보 등록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5회기 목사 부총회장 예비후보로 류영모 목사(매주한소망교회)가 단독 등록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장로부총회장 예비후보로는 박한규 부산 학장제일교회 장로가 역시 단독으로 등록했다. 류 목사는 서울서북노회, 박 장로는 부산동노회 소속이다.

기독교문화선교회 이사에 유준식 회장



기독교문화선교회(대표회장 김보훈 목사)는 지난 2월 28일(금) ㈜체리쉬(CHERISH) 유준식(상암동교회 장로) 회장을 기독교문화선교회 이사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부족하지만 고 황수관 박사의 유지를 잇는 선교회에 조금이나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 회장은 고양시 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슈퍼전파자, 신천지는 ‘교회’가 아닌 ‘장막성전’이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된 패렴 바이러스가 잠시 주춤하는 듯하더니, 며칠 사이 대구 지역에서 급격히 확산되면서 온 국민을 긴장케 하고 있다. 20일 오전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중국 우한 패렴 확진자는 갑자기 82명으로 늘어났으며, 시간이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대구지역에서 갑자기 패렴 확진자가 확산된 것은 31년 확진자가 특정 종파를 가진 사람이며, 그의 종교 활동을 통하여 확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구 지역은 충격 그 자체이다.

이 사람은 한국교회에서 이단(異端)으로 분류한 신천지(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소속으로, 한국교회에 끊임없이 도발

하는 이단 세력이다. 현재 신천지 신도 가운데 확진자는 무려 38명인데, 대구시의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그 안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걱정된다.

현재 신천지 세력은 전국에 125개의 위장된 종교 활동 장소가 있고, 그들이 작은 모임을 하는 곳까지 포함하면 740곳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단일화된 이단 단체이며 거대 조직으로 서로 왕대하는 특색을 감안하면 이들 전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전방위적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대구에서는 ‘슈퍼전파자’가 된 신천지 신도들의 종교 활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으나, 그들의 종교 활동과

사회 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외부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여 확실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천지의 공식적인 종교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들 세력들이 각 지역 교회에 스며들거나 예배에 참여할 공간이 크므로 각 교회에서는 이들의 출입에 대하여 분명한 금지를 선포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각 언론과 정부에서 발표할 때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교회’라는 말 대신 ‘신천지’나 ‘증거장막’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들 단체의 공식 이름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신천지에서 십수 년을 몸담

고, 20여까지 올라갔던 사람(전 세계여성 평화그룹 대표)이 신천지에서 나와서 ‘이 00는 구원자도 아니고 저와 똑같은 죄인인 사람이다. 하나님과 종교를 이용한 완전 사기꾼’이라고 폭로한 것으로 볼 때, 이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혹세무민’하며, 기존의 건강한 교회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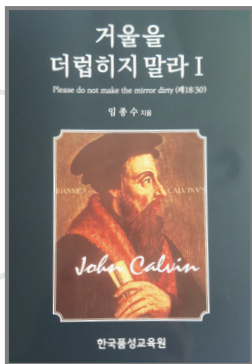
신천지는 각 지역별로 지파(12개)를 정하고(대구: 대대도 지파)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분기들에 의하면 각 전위부대를 두고 사회적으로 위장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단체들을 보면 위장 평화에 앞장서는 HWPL, 신천지의 자금줄이며 부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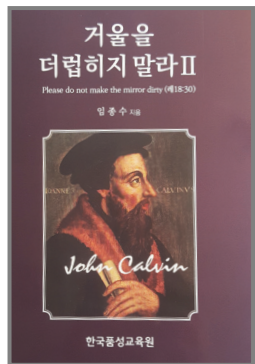
심의 IWPG, 청년 조직과 국제평화연합의 IPYG, 평화 세상을 만든다는 대학생 동아리 UNPO, 교회 앞에서 시위를 주도하는 여성평화인권위원회 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직의 활동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천지는 일부 정치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신천지는 사회적으로 도의적으로 볼 때, 이번 대구 지역에서 우한 패렴 ‘슈퍼전파자’가 되어 온 국민들을 놀라게 한 것을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일체의 모든 신천지 종교 활동과 행위를 그쳐서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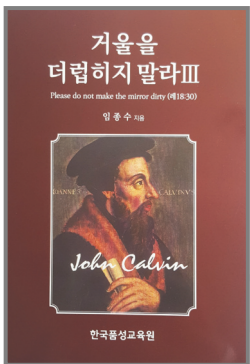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든 어떤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왜곡된 결정에 대한 입장문 발표

2020년 1월 14일에 합동 교단 56명의 노회장들이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를 철회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입장문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합동 교단 노회장들의 입장문 발표가 이상원 교수의 추가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왜곡된 결정에 대하여 합동 교단 88명의 노회장들은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신대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는 합동 교단 노회장들의 두 번째 입장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 고함 Ⅱ〉

1. 지난 해,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강의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학교 대학위원회는 심의 결과, 징계위원회 회부 사안이 아니라고 판결하였고, 따라서 학교 대학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사안은 이미 무효로 종결되었다.

2. 그런데 재단이사회는 구체적 근거도 없이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였다.

3. 더 나아가서 올해 첫 회의인 1월 16일의 이사회에서 재단이사들은 이상원 교수에게 추가적 혐의를 덧붙여서 징계위 회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 추가적 혐의란 다음과 같다.

요컨대, ‘이상원 교수가 원래는 성희롱 여부 사안이었던 것을, 반동성에 강의를 탄압하는 진영논리 사건으로 둔갑시켰고, 따라서 총신대학교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용덕 재단이사장은 이 사안이 엄중하므로 ‘사회적 정의’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4. 그러나 이상원 교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56개 노회의 노회장들이 발표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 고함〉이라는 지난 번 성명서에 관여하지 않았고, ‘반동성에 활동에 대한 탄압 프레임’을 구성함으로써 학교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한 일이 없다. 따라서 재단 이사회가 그에게 씌운 추가적 혐의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처사는 위법적 및 월권적 조치이며, 또한 합헌적 활동과 강의를 하는 그에게 대한, 오히려, ‘역차별’이다.

5. 재단이사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56개 노회장들이 벌이는 자발적 시민운동과 이상원 교수의 합헌적 교수 활동에 대한 위법적 및 월권적 억압을 철회하라.

6. 재단이사회는 이상원 교수가 신학자적 신앙과 지성, 양심에 기초하여 동성성행위와 이성성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및 보건적 차이와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진리를 그대로 전한 정상적 강의를 파렴치한 성희롱으로 몰아기려는 반합법적 반성경적 장계의결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7. 재단이사회는 당신들이 그렇게도 의지하는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정의’가 헌법과 법률 어디에 정당하게 근거하고 있는지 근거를 밝히고, 그것이 총신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성경적 신학과 교리와 어떻게 상충되지 않는지 그 근거를 밝히라.

〈동참 노회장〉

강요한(평안노회장), 공인식(북전주노회장), 박양구(대구수성노회장), 김광이(경기서노회장), 김대원(한남노회장), 김동준(대구중노회장), 김동학(경상노회장), 김두홍(대경노회장), 김만중(서대원노회장), 김병욱(전남노회장), 김영길(서부산노회장), 김용석(관서노회장), 김우현(중부산노회장), 김자현(서평안노회

장), 김정열(목포노회장), 김진택(경북노회장), 김철권(인천노회장), 김태진(용인노회장), 김현웅(소래노회장), 김훈(경남노회장), 나종래(군산노회장), 노갑춘(서광주노회장), 류만옥(서대구노회장), 류재이(대전중앙노회장), 류춘식(용천노회장), 민경수(남대구노회장), 민경식(남수원노회장), 민남기(광주노회장), 박건(중경기노회장), 박만규(수원노회장), 박승규(충주노회장), 박이현(여수노회장), 박재호(남서울노회장), 박종걸(평서노회장), 박종선(남울산노회장), 배병렬(동광주노회장), 백영태(영주동부노회장), 서성원(충북노회장), 서정수(전주노회장), 서종대(영주노회장), 석광희(영청노회장), 성경선(경남동노회장), 신안식(목포제일노회장), 심규찬(남부산노회장), 양석봉(전주노회장), 양영태(울산노회장), 오정욱(전북제일노회장), 우기종(남경기노회장), 유수복(경기북노회장), 윤상중(동대구노회장), 윤현하(호남노회장), 이강식(서전주노회장), 이정완(함평노회장), 이상현(경인노회장), 이수덕(전주노회장), 이윤동(부산노회장), 이월수(전남제일노회장), 이장현(남광주노회장), 이재홍(흥고을노회장), 이진철(동부산노회장), 이관용(군산남노회장), 임계빈(영양제일노회장), 임병록(서서노회장), 장기주(순천노회장), 정활민(대구노회장), 전용길(전북서노회장), 전종남(서울경서노회장), 정규용(남평양노회장), 정래화(구미노회장), 정해룡(부산노회장), 조우영(남부산노회장), 조정봉(서인천노회장), 주만철(서수원노회장), 차동진목사(서경노회장), 차영진(광주제일노회장), 채종성(동인서노회장), 추형호(동전주노회장), 최명호(충청노회장), 최윤영(서수원노회장), 최현종(고흥보성노회장), 하지호(동대천제일노회장), 하종성(영남노회장), 홍석기(목포서노회장) (총 88명)

성경적 창조론 ①

한윤봉 교수// 전북대 교수, 한국창조과학회 회장

성경적 창조론이 답이다

21세기 과학기술은 과거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AI를 채용한 기계와 로봇이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테슬라 창업자인 엘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문명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위험”이라고 했다.

미래 사회는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세상이 될 것이며,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문제는 지식과 정보가 많을수록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혼란에 빠지

기 쉽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혼란은 기독교 신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혼란 때문에 안타깝게도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도전받고 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을 믿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교리는 창세기를 바탕으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창세기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지성인

들이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내용을 믿고 가르치는 ‘성경적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반(反)지성적이고 비(比)과학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을 믿는대면서도 그들은 성경(특히 창세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보다 주류 과학계가 주장하는 진화론을 더 믿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창세기의 역사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며, 대신 비유나 상징 또는 신화로 해석하려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한 창조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창조가 과학적으로 사실이라면, 피조 세계에는 그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



총신대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 및 군동성에 문제 규탄

“동성애는 온 세계를 긴장시키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섭다”

“대한민국 군대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군인권센터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한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동성에 및 인권 공동대책위원회 정책 발표 및 기자회견이 지난 2월 21일(금)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8호실에서 열려 총신대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 건과 군 동성에 옹호 조장 문제, 기독교대학 교직원 채용 문제에 국가인권위의 부당한 간섭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했다.

발제에 앞서 진행된 개회예배는 김성한 목사(차별금지법 대책위 서기)의 사회로 김장만 목사(차별금지법 대책위)가 기도하고 문영용 목사(이슬람 대책위원장)가 설교를, 김병훈 목사(단군상봉제 대책위원장)가 축도했다.

문영용 목사는 설교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또다시 온 백성이 가슴 치며 통분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동성에 확산으로 인한 재난의 시한폭탄이다”라고 말하고 “이 동성애는 온 세계를 긴장시키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섭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육체만 힘들게 하지만 동성애의 재난은 결국 육체는 물론 심령까지 파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목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곳에서 동성애로 인하여 개인주의와 폐락주의로 질서가 깨지고 생육 번성이 중단되며 생명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악한 유희의 소리와 갖가지 파괴적 외침들이 범람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기독교적 전통까지 세상의 것대로 융화한 안목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되면 마침내 우리나라는 (제2의 실낙원)의 비극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원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가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김영길 대표(비른국민권연구소 대표)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동성에 옹호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고흥석 박사(예장통합 한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가 “기독교대학 교직원 채용 부당하게 간섭하는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제목으로, 주요섭 대표(차별금지법반대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 공동대변인)가 각각 발제를 했다.

이날 정동섭 교수(사이버종교학파대책연맹 총재)가 발표한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니쁜 인권 규탄, 한국교회연합 동성에 & 인권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1. 총신대 관련 재단이사회의 부당하고 월권적인 징계위 회부 결정을 규탄한다

총신대 관련 재단이사회는 이상원 교수의 징계위 회부 결정을 철회하라!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 강의 중에 동성 간 성관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교육적 목적에 합당한 내용이었다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도 2019. 12. 13. 심

의에서,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는 위 사안을 재단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외부 관심이사들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상원 교수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하였다.

한국 교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징계위 회부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성전환 부수관 전역 심사에 간섭한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국방부는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남성을 ‘성 정체성 장애’로 분류하고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입대하기 전에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은 이에 군 복무의 대상이 아니다.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현역 부수관 변희수 하사는 군 병영 의무 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육군 전역 심사위원회는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역을 결정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군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을 생각할 때, 군의 이러한 결정은 합법적이고 상식적이며 적절한 조치이며 대다수 국민은 이를 환영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전역 심사를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긴급 구제 결정을 내린 것은 군 기강의 확립과 국가의 안전,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부당한 간섭이며 이를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의 전투력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해서는 안되며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특히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와 군복무를 기피하고 처벌까지 받은 입대후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한민국 군대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도 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군대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군인권센터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한다.

3. 기독교대학의 교직원 채용에 국가인권위의 부당한 간섭을 규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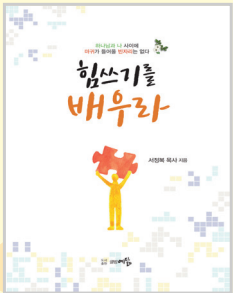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대학인 총신대와 숭실대, 한남대 등에 대하여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이며, 이를 규탄한다.

총신대는 기독교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이며,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인 교직원을 뽑는 것은 학교 설립 목적에 비추어 합당하고 정당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간섭하는 것은 기독교 대학의 설립 목적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뜨거운 찬양 사역자,
 열정적인 설교자 서정복 목사의 신간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동이트는 새벽, 시린 손 호호불며 기도의 손을 모으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의 삶을 다짐하는 남원중앙교회 새벽제단의 특별새벽기도회의 말씀이 오롯이 가슴에 와 닿는다. 믿음·소망·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목사의 특별새벽기도회 설교말씀이 수록되어 있다. 귀한 말씀이 복음의 도화선이 되어 갈급한 심령에 불타오르기를 기도한다.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지음,
 도서출판 글방 예람 발행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가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은 지난 1월 25일(금) 한의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입점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교단 부산지방회 증경회장 한경집 목사와 교영권 목사 등이 참석하여 축복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험)
- (*고려대학교 손웅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전북대연구논문)
-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 6)갈슘 : 홍화씨의 2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 (호서대연구논문)
-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 *유방:중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생화사진틀(선택형)



▲45인승 버스



▲최고급 리무진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8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8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0년 3월 30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3월 19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8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신 재 영
총 무 목사 이 경 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D.F장학회 창립 및 제1회 장학금 수여

(도너 패밀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 학비 지원 등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이하 본부)는 지난 2월 20일(목)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본부 회의실에서 D.F(도너 패밀리) 장학회 창립 및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회 창립은 장기기증이라는 숭고한 나눔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한 뇌사 장기기증인의 유자녀들이 생명나눔의 자긍심을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뇌사 장기기증인 2,488명 중 3·40대는 87명으로 약 35%에 달한다”라며 “이는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인 미성년 자녀를 둔 수많은 가정들이 뇌사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장학회 설립 배경을 밝혔다.

이를 위해 D.F장학회는 설립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장기기증인의 생명나눔 정신을 알린 △유가족들이 생명나눔 실천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한 △유자녀들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꿈과 재능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자 한 등을 명시하고,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들에게 학비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D.F장학회는 이날 출범식에 이어 최초로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첫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들은 생명장학생(대학생) 김조이 군(재 김기호 씨 자녀, 대학교 진학 예정), 김수린 양(재 김준은 씨 자녀, 대학교 3년), 홍은하 양(재 홍순영 씨 자녀, 대학교 4년)과 사랑장학생(고등학생) 이규린 양(재 이현규 씨 자녀, 고등학교 진학 예정),



김현진 군(재 박선화 씨 자녀, 고등학교 3년), 배진우 군(재 배종수 씨 자녀, 고등학교 3년), 김조엘 군(재 김기호 씨 자녀, 고등학교 2년), 김주희 양(재 김일영 씨 자녀, 고등학교 2년) 등 모두 8명으로 장학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했다.

이들 외에도 이번엔 선발된 장학생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가정과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들로서, D.F장학회는 앞으로도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들이 생명나눔에 대한 자긍심을 품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1차 장학증서 수여를 위해서는 신한은행

충정로지점(신촌지역단장 이규민)과 KB국민은행 중곡동지점(지점장 구자용), 배자화세무회계사무소(세무사 배자화) 등 기업 및 단체, 네이버 해피빈 모금을 통한 개인 후원, 그리고 발음교회(권윤복 목사), 구산교회(담임목사 조성광), 목천교회(담임목사 김상원), 안성중앙교회(담임목사 송용현), 주하늘교회(담임목사 이정원) 등 교회의 후원이 있따.

D.F장학회는 매년 뇌사 장기기증인의 유자녀인 중·고·대학생 각 5명씩 15명을 나눔·사랑·생명 장학생으로 선정해 장학증서를 수여할 방침이다.

신간 안내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당신을 붙잡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고통 대신 평안을 누리고, 위기의 한기운데에서 확신을 찾고, 희망으로 절망을 밀어내며 살아가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매 순간 삶의 목적과 소망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저지르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여겨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범사에 행동하여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을 때에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꽃대를 바라보라.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담당하신 분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지 생각하라. 부활하신 주와 함께,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라!

저자/역자 : 맥스 루케이도/박상은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20-02-24 | (140*200)mm 264p | 판매가 : 15,000원

한국고대기독교 역사재조명=김철수 장로 논란 집



이동문학가 김철수 박사의 제24번째 저서인 《한국고대기독교 역사 재조명》이 도서출판 샛별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고대 기독교역사를 재조명하는 논문 17편이 수록되었는데 〈동방박사는 신라 사람인가?〉, 〈민족의 노래 '아리랑'의 비밀〉, 〈한국어는 지상 최초의 언어인가?〉, 〈한민족과 유대인은 형제인가?〉, 〈3.1운동의 민족대표는 33인가? 48인가?〉, 〈김수로왕과 허황옥을 중매한 도마의 한국선교〉, 〈무궁화는 성경에 나오는 '사분의 장미'인가?〉, 〈애국가에는 찬송가인가?〉, 등 그동안 사회의 이슈가 된 기독교 관련 고대역사를 재조명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크리스찬문학》지의 발행인과 미술전문대학교 한국분교 학장을 맡고 있으며 기독교타임스 주필과 동북일보 논설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국판 190p 도서출판 샛별 판매가 : 15,000원

고구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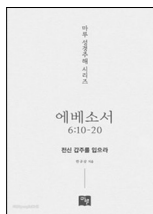


의 교회 부흥 강사 섬의 1순위였던 '고구마전도왕' 김기동 집사가 어느 날 미국으로 떠났다. 그 후 약 20년이 흐른 동안 '고구마전도'도 한국 교회의 전도 열기도 사라져갔다. 그러나 고구마전도도 고구마전도왕도 멸종 것이 아니었다.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고구마 순행했 미국으로, 세계 각 대륙으로 뻗어갔다. 짧은 네 분장의 영적 젓가락으로 전도의 두려움을 날리고 준비된 영혼을 찾아 예수를 전하는 '고구마전도법'이 막강하게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다. '익은 고구마' 골라내기부터 그에게 전할 복음의 핵심 '본 하인애용'까지, 만남에서 영접까지 한자어에서 이루어지도록 전도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저자의 유쾌한 입담으로 쏟아낸 20년의 기쁨 가득한 사역 보고가 담겼다.

저자 : 김기동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20-02-21 | (145*210)mm 296p | 판매가 : 15,000원

전신갑주를 입으라 - 에베소서6:10-20



"일반 주석서는 목회에 필요한 요점을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수고를 요구한다. 목회자의 설교집은 여론과 감동을 줄 수 있겠지만, 본론 해석을 위한 견고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놓아, 목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경 주석서를 집필하고자 했다. 상세한 본문 주석을 기반으로, 설교 및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도록 안내하는 성경 주석서를 저술하고 싶었다." 이 책은 에베소서 6:10-20의 '주해서'이다. 주해란 성경의 본문이 드러나도록 그 의미를 설명하는 장르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본문의 헬라어와 수사법 및 역사적 정황과 신학적 메시지를 두루 살펴, 믿음연구자는 물론 본론 해석의산을 오르코자 노력하는 일반 성도들에게 친절한 안내자를 저자한다. 저자 : 한규삼 | 출판사 : 미루

발행일 : 2020-02-18 | (122*144)mm 128p | 판매가 : 15,000원

박신혜, 코로나 19 기부 동참...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마스크 지원



배우 박신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국제구호개발NGO '희망진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박신혜 기아대책 홍보대사가 2월 26일(수) 국내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5,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기부된 후원금은 기아대책 지역아동센터 '행복한홈스쿨' 소속 아동의 가정을 위해 사용된다. 490가정에 한 달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배우 박신혜는 "코로나19 국내 확산 방지를 바라며 기부를 하게 됐다. 보호 받아야 할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위협받지 않길 바란다."며 기부 취지를 밝혔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신혜는 2011년부터 기아대책 홍보대사를 맡고 있으며, 2016년에는 기아대책 고액 후원자 모임에 가입해 국내외 아동들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행복한홈스쿨'에는 2014년 난방비 지원을 시작으로 시설 개보수, 야간보호프로그램 등 후원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청호오일, 선택리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생강오일, 게피유
•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려줍니다.

② 전나무 참편한근육마사지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도향오일, 상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열매오일, 꽃박하오일, 레몬그라스오일, 캐모마일오일, 생강오일, 게피유, 선택리향오일, 윈터그린오일
•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뭉치고 통증이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운동전후운전시/수화생/컴퓨터작업시)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워터,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로써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⑤ 전나무 숲 블랜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랜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구주소나무오일,유향유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⑥ 맑은호흡 캔들 (130g)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길에 있는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⑦ 전나무 오리자발 비누 (100g)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세어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원재료 : 코코넛오일, 세어버터,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등

⑧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등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 사어버터, 마카데미아씨오일등

⑨ 젤뮬케어 립밤 (15ml)

입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발라주어 부드럽음과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트아몬드오일,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껍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등
• 사용법 : 입술, 손, 발, 각질부문에 발라줍니다.

⑩ 전나무워터 (180ml)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워터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워터
• 사용법 : 화장실, 부엌등 향균이나 향취가 필요한곳에 뿌려줍니다.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지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FA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기지협, 3·1정신으로 국가의 위기 극복

‘코로나19’ 종식 위해 한국교회 적극 앞장서야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3.1절 만세운동의 감동은 계속됐다.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한 ‘대한민국 독립 만세’의 외침이 3.1절을 앞두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울려 퍼졌다.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진목 목사)는 지난 2월 28일(금)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3.1절 101주년 기념예배 및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끼여 목숨을 바쳤던 선조들의 헌신과 결단을 본받아,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민족 지도자 33인이 낭독한 독립선언문을 다시 한 번 세상에 공표하며, 그 날의 감격과 애국의 의지를 되새겼다.

이날 예배는 대표회장 신진목 목사의 사회로 조영원 목사(연세대동문회 상임이사)의 기도예에 이어 최석우 목사(서울경찰청 경무실장)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최 목사는 “100여 년 전 이 땅의 독립을 선언한 이들은 대부분 목회자였고, 그리스도인이었다. 기독교의 정신이 이 땅을 일깨웠고, 민중들을 계몽시켰다”면서 “상

해 임시정부 초대대장이손정도 목사였고, 15인의 위원회 역시 모두 그리스도인이었다. 윤치호 선생이 지은 ‘하나님이 보우하사’라는 가사가 담긴 애국가가 채택된 것은 그 시대에 기독교의 역할을 보여준 단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애썼던 분들이 복음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었기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었다”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을 선교화국으로 우뚝 세울 수 있다. 세계 선교를 이끄는 우리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

특별기도시간에는 김동원 목사(기장 증경총회장)가 ‘3.1정신으로 나라를 굳게 지키기 위해’, 서진경 목사(기지협 고분)가 ‘북한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김사람 목사(미래나타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김사철 장로(기지협 공동부회장)가 ‘4월 총선에서의 정직한 애국인사가 선출되기 위해’라는 주제로 각각 특별기도를 이끌었다.

백사마을에 연탄 2만6천250장 전달

한교연, 영세민 170가구 한달간 따뜻하게 지낼 분량

한국교회연한(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지난 2월 26일(수) 오전 11시 서울 노원구 중계동 104단지 일명 백사마을에서 코로나19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달동네 영세민들의 차갑게 얼어버린 가슴을 따뜻한 연탄불의 온기로 녹여줬다.

2020 사랑의연탄 나눔 행사에 참가한 30여 명의 한교연 임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우려로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겨 사실상의 고립상태를 겪고 있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에 연탄 2만6천250장(2천백만원)을 전달했다. 이 분량은 170가구가 한 달간 난방 연료로 쓸 수 있는 분량이다.

이날 연탄 봉사에 앞서 드린 예배는 실내를 피해 야외에 있는 연탄은행 창고 앞에서 모든 봉사자들이 선례

로 드렸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복있는 사람’(마 25:34-36,40)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을 복하다고 하셨다”면서 “옥에 갇혀 고통받는 사람들과 헛벗은 이웃들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강조했다.

권 목사는 “오늘 우리가 연탄을 전달하려는 이곳의 이웃들은 경제, 건강, 권력의 약자들”이라며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경제적인 고통에 코로나19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이 마을 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초스피드 능력 전도사역자로 부름 받다!

가족세트전도법 세미나 첫째 날, 박영수 학장은 오전 강의와 전도실습 후에 저녁 강의 시간에는 전도현장 동영상 보여주며 전도의 열정에 도전하게 하고, 전도왕의 사명에 불신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가족세트전도법에서 느낀 점은 매우 쉬우나 또한 따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박영수 학장이 가르쳐 준 그대로 따라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세트전도법 대로 사업장에서 전도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분의 영혼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분의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매우 기뻐서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팔짝팔짝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영적 지존감과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과 주님을 영접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충만, 행복충만, 성령충만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박영수 학장의 제자가 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영원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 홍보대사
서울 금호동 열방제자교회
이선희 전도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o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CTS기독교TV, 코로나19 소멸 특별 기도회

‘주여 도우소서’ 주제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국내에서 급속하게 확산되어 확진자가 1달여 만에 1천여 명을 넘은 가운데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코로나 19 소멸을 위한 특별기도회 생방송 ‘주여 도우소서!’(연출 이재선, 감경민)를 편성했다.

2월 26일(목)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일 오전 9시 30분 생방송으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될 이번 특별기도회는 전기철 목사(강남제사립교회)가 진행한다. 기도회에서는 코로나 19 감염으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대구 및 경남, 경북 지역 교회 현지 상황을 영상 통화로 연결해 현지 상황을 두고 기도제목과 상황을 나눌 예정이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번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지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예정이다.



“쪽방촌과 독거어르신께 사랑의 떡 나눔으로 섬겨”

쪽방촌과 독거노인을 비롯한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해동마을(이사장 정현일 목사 신명당나무교회)의 엘드림노인대학(학장 최에스더 신원대교수)은 (주)바로나대표 나정은 장로, 임마누엘교회의 후원으로 2월 26일(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눔지역이 중단되어 대체적으로 대신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어르신들께 사랑의 떡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김옥자 목사(임마누엘교회)는 “기도하는 중에 급식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을 해동는 마을 어르신들이 생각나 사랑의 떡을 준비 했다”고 전하면서 어르신들께 사랑을 전했다.



정현일 이사장은 “김 목사님과 나정은 장로님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큰사랑의 나눔사업으로 섬겨 주셨는데 오늘도 잊지 않고 오셔서 사랑의 떡과 마음을

나눔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끝나 점심을 굶는 어르신들께 나눔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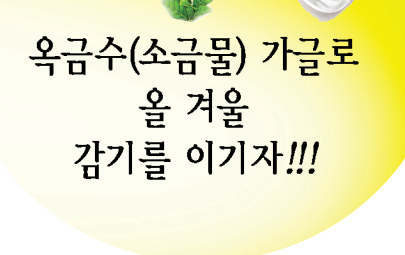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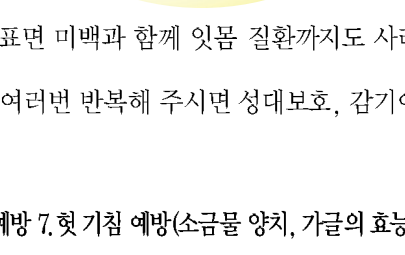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염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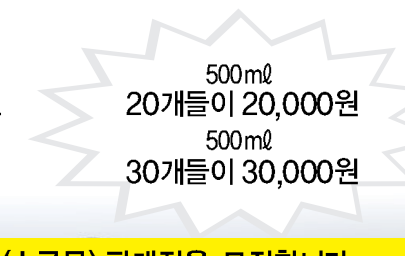
사용법 및 효능

-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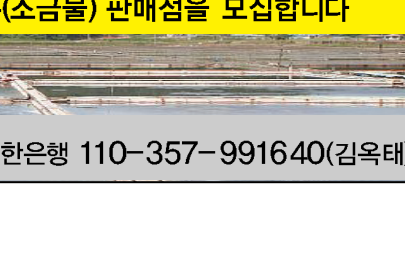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옥금수(소금물) 가글로

올 겨울 감기를 이기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교단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정적위원장	신재영 목사 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별양교회	엄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북원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침종은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0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의교회)	진동용 목사 (새소망교회)	김용택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달 목사 (진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택 목사 (일산은혜교회)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인한 목사 (청신교회)	김양인 목사 (복영제일교회)	임종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신재영 목사 (사김전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별양교회)	엄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최정식 목사 (순복음북원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임영광 목사 (인천순복음중앙교회)	오승욱 목사 (천안서대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영강교회)	백영자 목사 (복동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김종연 목사 (의정문혜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침종은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미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별양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평안교회)	박홍원 목사 (오성사랑교회)
실무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서기	재무	회계	감사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성기창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 (빛은빛교회)	김연옥 목사 (행복한신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이형은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조규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우광덕 목사 (메이루대광교회)	최남석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순복음우리교회)	권태선 목사 (순복음아름교회)	이회숙 목사 (의정문혜교회)	홍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정관무 목사 (순복음빛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주창민 목사 (순복음별양교회)	배용관 목사 (순복음진원교회)	옥보애 목사 (소망농아교회)	정예서 목사 (예수광기기도원)

정회원

이형은 목사 (은혜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사랑의 묘약

구약과 신약

세상 사람들은 이 책을 수면제로 생각합니다.
보기만 해도 졸음이 오는 책이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책을 안정제로 생각합니다.
먹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책
이랍니다.

구약과 신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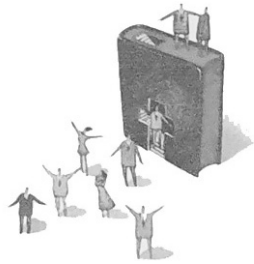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특효약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효약입니다.

그분의 전부를 녹여 만든 사랑의 특효약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한 보혈이 담긴 특효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그 약은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어디에나 손만 내밀면 가질 수 있는 약입니다.
필요하면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약입니다.
잠시 잠깐만을 위한 약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특효약입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주신 깨달음을 적다



포커스
중국인가 국민인가

김영환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살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중국에 대한 초기방역 놓쳐
‘수퍼전파자는 文정부’ 전문가 견해” 인용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환 박사, 이화 살롬나비)이 논평을 내고 중국에 대한 입국 통제와 관련 정치적 판단이 아닌 의료적 결정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살롬나비는 2일 ‘중국 코로나 폐렴 국내 대감염 사태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방역 실패로 초토화된 대구 경북 지역은 보기에라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아저는 삽으로도 막기 어렵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살롬나비는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 1월 26일부터 2월 24일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했던 중국 입국 제한 권고를 무시하다가 확진자가 급증한 이제서야 논의 없이 ‘전파 처방 허용’ 지침을 강행했

다”며 “정부가 감염원 대량 유입 차단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을 무슨 이유에선지 지키지 않은 것이 사태를 이렇게 키운 것이다. 결국 ‘수퍼전파자는 문재인 정부’ 라는 것이 의료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중국 입국하는 한국민을 격리하면서 ‘외리보다 방역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구 대전 연 기운에서도 정부는 ‘방역보다 중국’이라고 ‘중국과의 운명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 정부의 정치적 대응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정부와 청와대의 눈치만 보다가 이번 코로나 역병이 국내 지역감염으로 확산되도록 방치

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관계자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이 정부는 중국을 섬기는 정부인지 대한민국을 섬기는 정부인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살롬나비는 이어 “그간 코로나 역병에 대한 우려와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며 부책임한 정부의 어용언론을 자처한 언론들은 아슬직고하고 언론 정도(正道)를 바로 세워야 한다. 특히 한중국경을 적기에 차단하여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부의 나팔수 노릇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거짓 언론은 진실을 팔아 돈과 권력을 탐하는 자들로 기록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사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가 최우선

조선시대의 전염병 방역서 ‘백운신방’에 보면 전염병 발생지의 주민들의 이동을 철저하게 통제했다는 기록들을 볼 수 있다. 조선의 왕들은 전염병 대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왕조실록에 많은 기사를 남기고 있다. 이곳에 전염병이 돌면 제일 먼저 문을 닫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다. 세계의 정상적 나라가 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역병의 발원지의 수장 시진핑 병한 성사를 위해 꼭 필요한 역병 발원지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는 의료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안전을 두고서도 과학보다 정치가 우선이 되어 국민을 코로나 제물로 바친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한 번도 경합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합하게 하고 있다.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오는 국민들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미 한국을 출발한 비행기를 입국을 불허하며 공중에서 돌려보내가기까지 한다. 이미 도착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무런 증상이 없음에도 격리시키고 열악한 장소에 억류시켰다가 돌려보내고 있다.

국민은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방어품인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백 미터의 줄을 몇 시간 동안 겹겹이 서 있다가도 구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는데, 그 마스크는 수백만 개씩 중국행 비행기에 실려나가고 있다고 한다.

한·중 정상간 통화에서 “남북 협력이 이뤄진다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했고, 시 주석이 지지 의사를 표했으며, 시 주석의 상반기 방향도 변함없이 추진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코로나 관련 대화는 덕분에 그치고 ‘남북 협력’ 공감대는 매우 구체적이다. 이 정부의 관심은 국민의 생명보다 이 부분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통일부장관은 이런 와중에도 국회에서 남북 철도 연결 및 북한 개별 관광 추진 등을 강조했다.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북한·중국과 접촉하고 철도 연결 등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이다.

한국교회는 더욱 하나가 되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회복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성으로 보듬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복음을 온전히 하는 이단 신전지 집단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괴멸되고, 분별력을 잃고 빠져 있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간지시리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불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시 41:1-4)

국가인권위 무용론

현재 총선이나 성결대는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가 있으며, 한남대에도 교역자 신학대학원 과정이 있다. 기독교학교에서 교직원을 뽑는데, 당연히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교 설립 목적과도 맞는 것이고, 그 설립 목적을 이루는데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교직원들로 채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가 비기독교인도 교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다. 국가인권위는 이것이 ‘헌법’과 ‘직업안정법’ ‘국가인권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나, 우리나라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존재한다.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하면, 종교의 자유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헌법 제31조 제4항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 된다’고 한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

된 기독교 대학의 자주성,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시민권법 제2000e에서도 ‘특정한 종교나 법인, 조합, 협회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특정 종교의 전파를 위해 만든 것일 때에는 특정종교 신자만을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초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을 넘어서서, 엄연히 성직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지나친 간섭으로 중립학교를 고사(枯死)시키려는 획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세계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처럼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 되어 있는 2500만 명 북한 주민의 유린당하는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도 드물 것이다. 그래서 국가인권위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동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혈몬산교회 부흥회 및 철야기도회

열방을 깨우는 혈몬산 기도의 집 (역대하 7:14)

금요 철야기도 안내

1. 나라와 민족 선교사들을 위하여
2.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3. 자녀들(영적문제) 가정문제

원장 : 김남순 목사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 합시다!

장소 및 문의

혈몬산교회(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백곡리 산 113번지) 010)2415-2062

담임



김남순 목사
혈몬산교회 담임

선교사 기도의 쉼터, 청소년사역 기도처

혈몬산수양관교회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교회 새생전에서 부흥회와매주 금요 철야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쉬어 갈 수 있도록 선교사 기도의 쉼터, 청소년사역을 위한 기도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문제해결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을 원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ASSEMBLIES OF GOD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d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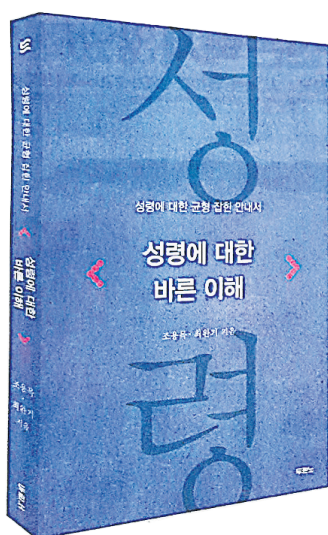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 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형신학으로 변질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 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 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 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 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 저 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